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나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옥대철 집사님이 부친상을 당하여 지난 2일(수)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 사순절 기간에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 1)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고 교회생활이 정상화 되도록.
 - 2)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 3) 산불로 수고하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 4)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시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0 호
2022년 3월 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겨울의 끝자락,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리는 봄의 때에 지구촌 곳곳에선 생명이 사그라지는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계 곳곳에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달리고 있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이어지며,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고통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속에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일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연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뉴스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서1:15) 라는 성경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게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녀가 떨어지던 폭탄의 파편에 맞아 사망하고 가정과 창고, 학교와 병원이 포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을 떠나 지하철이나 방공호로 피신하여 들려오는 공포의 소리를 견디며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전쟁인지, 누구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겨야하는지도 잘 모르는 양국의 어린 병사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옛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때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병사들은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데리고 다니고 업고 다니며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외우게 하고 이슬람 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후에 그들은 무서운 세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원래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후에 2001년 9월 11일, 탈레반의 주도하에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났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또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가 50만명에 이르고 이 전쟁고아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거나 돕지 못했고 그 결과 10여년 뒤 이라크 북부에서 IS(이슬람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이들의 소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선교와 섬김

탈레반과 IS, 이 두 집단 모두 극단적인 이슬람세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테러를 자행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특히 힘없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까지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에게 평화란?"

(정진아)

아빠 : 나에게 평화는, 여행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엄마 :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차려주는 밥 먹을 때

오빠 : 공부해라 잔소리 안 듣고 게임할 때

나 : 난 지금이야, 팔빙수 먹는 바로 지금

부탁

(박혜선)

짓밟다. 깨지다. 빼앗다. 무너뜨리다. 사라지다. ...

평화야! 어디든 가도 좋아

하지만, 이 말들 앞엔 절대 가지 말아라

[똑똑 평화입니다. 뜨인돌 어린이. 동시집 중에서..]

이 전쟁을 시작한 KGB 출신의 현 러시아 대통령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평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천여년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그들의 평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지금도 내전 중에 있는 세계 여러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 말씀

“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

<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1:1-18

제목 :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계시자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88 265 85

** 요한복음의 저자와 특징 **

- 1) 사도 요한이 기록.(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90-95년)
- 2) 문장의 표현이 단순하고 읽기에 쉽다.(초신자 도움)
- 3) 내용은 깊고 심오하다.(독수리 복음이라고 한다)
- 4) 해석의 책이다.(사건에 이어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
- 5) 기록 목적을 밝히고,<2-:31> 중요한 개념을 강조한다.

1. 그는 누구인가? (What)

- 1) 1절은 서론의 서론으로 중심단어는 “그”이다(28회 사용)
- 2) 중심절(주제)은 14절이다.“그 말씀은 ... 그의 ... 외아들”
- 3)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그리스도의 다른 측면을 증언)

2.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자이시다 (Why)

- 1)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는 빛이시다.<2-5>
- 2) 그는 세상에 오신 참 빛,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6-13>
- 3) 그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14-18>

3.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계시자를 믿자 (How)

- 1) 기본 적용: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계시자이심을 믿자.
- 2) 구체적인 적용.

하나님, 진리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자.

사람과 삶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자.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성경을 읽자. 성서일기)

성서일기

당신을 따라

내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사순절은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려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귀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 음성에 더 예민하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매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헨리 나우웬, [사건을 위한 기도선집] 중에서.

지체들의 삶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봄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과 새 생명이 자라나는 아름다움을 선물해줍니다. 옷은 아직 두껍지만 나무에 새싹들이 나는 것이 이제 봄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뜻한 봄의 시작과 함께 꾸러기의 신나는 1년이 다시 시작되면서 꾸러기들과 선생님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활기차게 지냅니다.

3월 4일 새 학기 시작을 감사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잠시 미루게 되었습니다. 꾸러기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꾸러기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꾸러기학교에서 만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올해 꾸러기 친구들은 모두 4명입니다. 또 4명 모두 6살로 친구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언니, 오빠와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올해는 친구들끼리만 있어서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는데 2명밖에 없지만 미용실놀이, 병원놀이, 유토놀이, 그림그리기, 모래놀이, 잡기놀이 등 너무 너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친구와 놀기에 하루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이들은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가 무림리를 떠나기 전에 벌써 꿈나라에 도착한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5살 때 보다 몸과 마음이 쑥쑥 자란 꾸러기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게 올해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개학을 앞두고 선생님들은 교실마다 다니며 재정비를 합니다. 시간표와 사물함 이름표, 신발장 학년표를 바꿔 붙이고, 청소용구들이나 소독액, 칸막이 같은 것들을 점검합니다. 친구들이 교실에 와서 보고 기뻐할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사물함마다 작은 간식 꾸러미 선물도 달았습니다. 나사렛목공소 소장님은 사물함 보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3월 2일 수요일. 드디어 어린이학교의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생활한복을 잘 갖춰 입고 높아진 학년에 어울리는 몸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학기에 달라진 규칙들, 바뀐 코로나 방역 지침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드디어 통합반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엔 선생님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건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친구들이 멈칫거리며 잘 못 맞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날 2시부터는 제 21회 어린이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1학년 입학생은 서예준, 이소리, 최민용, 최하늘, 한서연. 이렇게 5명이고, 5학년에 최시현 어린이가 편입했습니다. 6명의 친구들이 자기소개도 하고 모두가 갖가지 장기자랑을 해서 “와~, 오~~” 소리가 연거푸 나왔답니다.

목요일에는 어땠을까요? 1학년 친구들은 온갖 일이 다 새롭고 배워야 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손잡고 데려가 줍니다.

이제 모래놀이터와 그네, 뒷마당 운동장에서는 어린이 친구들의 숨소리, 깔깔대는 소리,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린이들이 누비는 공동체 마당에 진짜 새봄이 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지난 주일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과 가정이 새로이 멋쟁이학교의 식구가 되면서, 기대와 설렘이 컸습니다. 그 다음날, 멋쟁이학교는 속초로 개강여행을 떠났습니다. 재학생들은 작년에 아쉽게 무산된 종강여행의 한(?)을 뽑자는 듯이 최선을 다해 놀면서 참여했고, 특히 신입생들은 낮설음과 떨림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멋진 시간들을 가져갔습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축구와 피구, 공동체훈련, 레크레이션, 학기 오리엔테이션, 정태일 목사님과 최기찬 선생님의 방문, 바닷가 산책, 설악산 등반, 학년별 시간 등등 어느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학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잘 적응하고 지낼 것이라 믿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 내일 일은 난 몰라요 ”

요즘 온통 마스크를 비롯한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오미크론 확진자수, 그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대통령 선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를 분노케한 소식, 산발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산불 소식까지 온통 세상은 두렵고 어둡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요즘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안부를 물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방 식구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보고 싶습니다”로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요즘 무심코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와 ‘은혜로다’ 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가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내일은 커녕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일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으면서 혼자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3월이 되었는데도 별로 실천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실천할 계획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희 하루는 눈을 뜨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중보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아이스럽지만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주신 삶을 기쁘게 살자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믿음의 선조들의 삶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만큼은 절대 못 살겠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삶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열왕기상 3:5-15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 대선>

이제 대선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으며 사전투표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섬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디아코니아 자매회>

(1) 60인 시설 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서도 지금처럼 잘 보호해 주시도록,

(2) 제8대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원장으로 선택된 노종숙 언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위탁받은 성직을 잘 감당하도록,

(3) 21명의 디아코니아 가족공동체 언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정신을 실천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 학교와 교회와 생활공동체>

(1) 멋쟁이 여행 중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없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2) 어린이학교와 꾸러기학교가 수요일, 목요일부터 입학식을 하고 생활하는데 질병으로 부터 보호받고 잘 생활하도록

(3) 공동체원들을 질병으로 보호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사순절이 시작된 주간에 공동체는 각 학교의 입학식과 개강 여행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공동체 식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일 없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멋쟁이학교 개강 여행지와 장례식장 등 먼 곳을 오고 간 식구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때, 공동체 식구들이 더욱 건강에 유의하며 아무 탈 없이 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